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제33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제333회 제1차 정례회를 30일, 제3차 본회의로 올해 첫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원 발의 조례 건도 다수 심의 의결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 옥정호 녹조발생 현장 방문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옥정호 현상이 발생한 정읍시 산내면과 임실군 등 옥정호 일대 현장을 방문하여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예년 대비 적은 강우량으로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 축적된 영양물질과 최근 이상기온으로 일사량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녹조 과다 현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운암취수구의 상수원 취수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 지면서 마련되었다.

이복형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해마다 반복되고 극심해지는 녹조 피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옥정호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진행 중'

3년만에 대면으로... 16일까지 축하공연·체험·먹거리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 '풍성'

여행 명소이자 출사 명소로 이름나 있는 전라북도 제 1호 지방 정원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에서 '제15회 구절초 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는 1일 개막식(개장 9월 29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지방 정원 개장을 알리는 선포식 진행과 함께 인기 가수 김용림, 최성수, 박강성, 해바라기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치유와 건강, 향기를 주제로 한 참여형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들꽃정원과 참여정원, 물결정원, 출렁다리 등 지방 정원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숲속 잠, 족욕 체험, 향기 치유체험, 온열치료 체험이다. 축제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치유 등 심리적 위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행사다.

전망대에 꽃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을 남길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구절초 사진 공모전' 등 구절초 꽃길을 걷는 도중 소소한 즐거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장 중앙에 자리한 광장에서는 가을 서정과 구절초 풍경에 조화로운 감성 위주의 음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자와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이색스러운 길거리 퍼포먼스와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 꽃열차, 페이스 페인팅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MZ 세대 입맛을 사로잡을 푸드트럭과 음식 장터, 농특산물 먹거리장터는 관광객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쇼핑몰이 구절초 꽃축제 기간을 맞아 10월 16일까지 할인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단풍미인쇼핑몰, 특별이벤트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기간 각종 가공식품·발효식품 등 35% 할인

정읍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쇼핑몰이 구절초 꽃축제 기간을 맞아 10월 16일까지 할인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절초의 진한 맛과 그윽한 향기를 담은 구절초 제품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과 발효식품 등 20여 개 업체 50여 개 상품을 최대 35%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신규회원가입 고객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3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10월 2일과 9일, 16일에는 '깡 없는 롤케이크'와 '단풍미인 쿠키'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전원에게 입점 업체 물품과 증정품 등을 제공한다.

특히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추첨해 황금열쇠 3천과 최대 30만원의 쇼핑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풍미인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지역 생산자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며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 배송 서비스로 무료 배송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구절초 축제장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 063-532-4345, 063-535-43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제 기간 시식·체험·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읍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입주기업 2곳, 전북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참가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구 입주 '유진솔라' '테라릭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내 입주해 있는 (주)유진솔라와 테라릭스(주)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기업 부스를 열어 (주)유진솔라는 유진솔라의 기술력을 적용한 옥상·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품을, 테라릭스(주)는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전시했다.

(주)유진솔라는 수상태양광 부력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10월 전북도, 부안군과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산업단지에 첫 입주를 했다. (주)유진솔라의 입주는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의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사업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라릭스(주)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전북 부안 소재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아가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전북 최초로 선정됐다. 또한, 9월에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내 산업단지에 분양 계약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부안 수소 연료전지 생산체계 구축과 함께 타 기업 등과 연대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구' 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에는 (주)유진솔라, 테라릭스(주) 외에도 경일그린텍까지 3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국민행복·활력고창 비전선포식' 6일 동리국악당서 진행

민선8기 고창군이 '국민행복·활력고창 비전선포식'을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각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을 초청해 진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선8기 군정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비전에 따른 6개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을 최종확정해 발표한다. 또 모두가 '국민행복, 활력고창'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미니 현수막을 들고하는 퍼포먼스도 계획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어내고,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고창군의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고창, 자긍심 넘치는 고창으로 민선8기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고창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산림유역관리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산사태 등에 대비해 사방댐을 만들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곡물의 흐름을 정비해 산림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아산면 용계리 산24-1 일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인근에 자연휴양림 시설이 예정돼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0.7km로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 11억3100만원으로 그 중 91%인 10억2000만원 가량의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력넘치는 고창에 산림휴양 시설이 예정돼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